

#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특성이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안나\*, 이수휘\*\*, 전현정\*\*, 채명훈\*\*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

##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 특성이 그들의 문화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수행할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55명의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 문화적 공감태도(SEE), 성격요인(BFI), 문화적 역량(CCAI)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 역량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문화적 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적 공감태도, 성격요인,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본 연구 결과 문화적 역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은 문화적 역량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공감태도( $\beta=.357$ ), 성격요인 중 개방성( $\beta=.253$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화적 역량, 문화적 공감, 성격요인

## I. 서론

오늘날 국가 간 교류와 이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한다(Ministry of Justice, 201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국내 성인남녀의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8)에 의하면 국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2002년 이후 매년 28% 증가하였고, 2014년 국제결혼 심

교신저자: 이안나(annalee@chosun.ac.kr)

접수일: 2020년 7월 18일 심사일: 2020년 7월 20일 게재승인일: 2020년 8월 11일

사 강화 이후 다소 주춤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단일문화 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건강한 한국사회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Kim & Kim, 2013). 더 나아가서 다문화사회의 보건의료인은 사회구성원,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Wendt & Gone, 2012).

지난 2009년 국내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합법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Oh, 2011). 구체적으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8년까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국내 의료시장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발맞추어 내국인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인 작업치료사는 문화적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Mu, Coppard, Bracciano, Doll, & Matthews, 2010).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차이 및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며, 그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Sue, Zane, Nagayama Hall, & Berger, 2009). 보건의료에서의 문화적 역량을 고려한 서비스는 임상치료와 보건의료인의 치료기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높인다(Brach & Fraserirector, 2000). 이에 미국 작업치료협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작업치료사가 지녀야 할 필수역량으로 제시하였다(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15). 문화적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인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개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Cavillo et al., 2009). 따라서 작업치료 전공 학생은 다문화 역량을 개발하여 미래 작업치료사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클라이

언트의 치료를 위해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의 문화적 역량은 외국어 구사 능력, 외국인 친구 여부, 다양한 문화 관련 교육, 해외경험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접촉에 의해 습득되고 향상될 수 있다(Kim & Kim, 2013). 즉,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교류가 있는 경우 개인의 문화적 역량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개인의 문화적 역량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과 Lee(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공감태도가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태도는 문화적 역량의 기본적인 요소로서(McCoy, 2006),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용하는 공감적 태도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Jeffrey, 2008). 한편 개인의 성격특성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Reynolds & Rivera, 2012), 개인의 성격특성이 문화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구성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의 문화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일찍이 다양한 문화권 출신들로 구성된 국외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문화적 역량 개발을 강조하였다. 보건의료인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Yang, Lim, & Lee, 2013),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수준과 영향요인(Chae, Park, Kang, & Lee, 2012),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Peek & Park, 2013; Berlin, Nilsson, & Tornkvist, 2010), 작업치료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Suarez-Balcazar et al., 2009), 작업치료학과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Murden et al., 2008)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렇듯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학생, 간호대학생,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미래 보건의료인의

일원이 될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특성이 문화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작업치료학과의 다문화 교육 및 훈련과정 교육편성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특성이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고, 자료 수집 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 또는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1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IRB의 승인을 받았다(2-1041055-AB-N-01-2019-26).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확률  $p < .05$ , 검정력 95%, 독립변수 6개로 설정하고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총 146명의 적정 표본수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자료는 총 155부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 분석도구

#### 1) 문화적 공감 태도

타문화에 대한 개인의 공감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ang 등(2003)이 개발한 문화적 공감 척도(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SEE)를 Kim(2013)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EE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문화적 공감 태도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문화적 공감태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공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 공감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다.

#### 2) 성격요인

개인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 (1999)가 개발한 Big Five Inventory(BFI)를 Kim, Kim과 Ha(201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축약하고 타당화한 간편형 한국어 Big Five Inventory(BFI)를 사용하였다. 간편형 한국어 BFI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 15문항으로 신경증 3문항, 외향성 3문항, 개방성 3문항, 성실성 3문항, 친화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John과 Srivastava (1999)에 의하면 신경증은 정서적 안정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심을 원하는 정도를, 개방성은 지적자극, 변화 및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및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를, 친화성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성격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격요인 척도의 신경증 Cronbach's  $\alpha = .67$ , 외향성 Cronbach's  $\alpha = .71$ , 개방성 Cronbach's  $\alpha = .68$ , 성실성 Cronbach's  $\alpha = .74$ , 친화성 Cronbach's  $\alpha = .72$ 이다.

#### 3) 문화적 역량

개인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lcazar, Suarez-Balcazar와 Taylor-Ritzler(2009)가 개발한 문화적 역량 척도(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ventory, CCAI)를 본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CAI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 24

문항으로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 지식, 다문화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 역량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4.0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분석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의수준은 .05이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29명(18.7%), 여학생은 126명(81.3%)이었고, 21세 이하는 78명(50.3%), 22세 이상은 77명(49.7%)으로, 평균 연령은 21.7세( $SD=1.4$ )이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1학

년생은 33명(21.3%), 2학년생은 53명(34.2%), 3학년생은 51명(32.9%), 4학년생은 18명(11.6%)이었다. 영어능력을 살펴보면, 영어능력이 '상'은 2명(1.3%), '중'은 68명(43.9%), '하'는 85명(54.8%)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중 58명(37.4%)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19명(12.2%)은 1회, 17명(11.0%)은 2회, 61명(39.4%)은 3회 이상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성별에 따른 문화적 역량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문화적 역량 점수는 2.71점( $SD=.31$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평균 문화적 역량 점수는 2.81점( $SD=.38$ )으로 여학생의 평균 문화적 역량 점수인 2.68점( $SD=.2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 3.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문화적 공감태도, 성격특성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공감태도( $r=.471, p<.001$ ), 신경증( $r=.296, p<.001$ ), 외향성( $r=.409, p<.001$ ), 개방성( $r=.518, p<.001$ ), 성실성( $r=.393, p<.001$ ), 친화성( $r=.335, p<.0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문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5)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	%
Gender	male	29	18.7
	female	126	81.3
Age	21 $\geq$	78	50.3
	22 $\leq$	77	49.7
Grade	1 <sup>st</sup> year	33	21.3
	2 <sup>nd</sup> year	53	34.2
	3 <sup>rd</sup> year	51	32.9
	4 <sup>th</sup> year	18	11.6
English proficiency	low	85	54.8
	intermediate	68	43.9
	high	2	1.3
Overseas travel experience	none	58	37.4
	one time	19	12.2
	two times	17	11.0
	more than three times	61	39.4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ultural competence

Variable	<i>M</i> ± <i>SD</i>	<i>t</i> ( <i>p</i> )
Cultural competence	All participants	2.71 ± .31
	Male	2.81 ± .38
	Female	2.68 ± .29
		1.782 (.083)

Table 3.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Ethnocultural Empathy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Cultural Competence
Ethnocultural Empathy	1						
Neuroticism	.101	1					
Extraversion	.217**	.338***	1				
Openness	.315***	.331***	.729***	1			
Conscientiousness	.212*	.390***	.639***	.461***	1		
Agreeableness	.286***	.072	.518***	.452***	.509***	1	
Cultural Competence	.471***	.296***	.409***	.518***	.393***	.335***	1

\**p*<.05, \*\**p*<.0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s of Cultural Empathy and Personality on Cultural Competence

	Model 1		Model 2	
	<i>β</i>	<i>t</i>	<i>β</i>	<i>t</i>
Gender (Dummy Variable)	-.125	-1.305	-.073	-.936
School Year	-.180	-1.257	-.129	-1.134
Age	.007	.047	-.036	-.322
Oversea travel experience	-.010	-.118	-.008	-.112
English proficiency	.145	1.821	.088	1.333
Ethnocultural Empathy			.357	5.157***
Neuroticism			.102	1.418
Extraversion			-.034	-.316
Openness			.253	2.511*
Conscientiousness			.146	1.588
Agreeableness			.039	.482
	<i>R</i> <sup>2</sup> = .079		<i>R</i> <sup>2</sup> = .447	
			$\Delta R^2 = .367$	
	<i>F</i> = 2.539		<i>F</i> = 10.351***	

\**p*<.05, \*\**p*<.01, \*\*\**p*<.001

화적 역량 수준이 높은 개인은 문화적 공감수준이 높으며,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성격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Table 3).

#### 4. 문화적 공감태도, 성격요인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VIF 계수는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사를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은 1.920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적합하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인을 코딩하였다. 영어수준은 '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2명밖에 없으므로, 영어수준은 '하'와 '중상'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코딩하고, 학년과 영어수준은 범주를 나타내는 숫자가 커질수록 학년과 영어수준이 높아지는 순서범주형 변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코딩하였다. 자료코딩 후, 다음과 같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연령, 영어수준, 해외여행 경험 변인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연령, 영어수준, 해외여행 경험 변인을 통제 한 후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변인을 투입하였다.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성별, 학년, 연령, 영어수준, 해외여행 경험은 문화적 역량을 7.9% 설명하였지만, 각 변인은 문화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변인은 문화적 역량을 44.7% 설명하였는데, 1단계보다 36.7% 더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공감태도와 개방성 변인이 문화적 역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Table 4).

#### IV. 고 찰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인의 일원인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 민감성, 지식을 의미하는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Dillard et al., 1992). 문화적 역량을 지닌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Mu et al., 2010). 반면, 타문화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치료사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Levin, 2007). 이에 미래 작업치료사가 될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요인이 문화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살펴본 결과, 2.71점( $SD=0.31$ )으로, 4점 만점인 문화적 역량 척도의 평균인 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역량 척도(CCAI)로 국내·외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점수와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역량 척도(CCAI)와 동일한 척도로 미국 작업치료사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한 Suarez-Balcazar 등(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작업치료사의 평균 문화적 역량 점수는 3.07점( $SD=0.40$ )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평균 문화적 역량 점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사회는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이루었는데,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Suarez-Balcazar et al., 2009). 따라서 다문화사회인 미국사회에서의 경험이 미국 내의 작업치료사의 높은 문화적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공감태도, 성격특성,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공감태도는 문화적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문화적 공감태도와 문화적 역량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 태도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문화적 공감태도와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치료 학과 전공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적 공감 태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성격특성 또한 문화적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정서적으로 민감한 신경증,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책임감이 강한 성실성,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친화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강할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요인(BFI) 척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McCance (2010)의 연구에서 유연성, 문화적 공감, 정서적 안정, 개방성, 사회적 친화성 요인으로 구성된 문화적 성격 요인은 문화적 역량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인 성격요인은 문화적 역량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정서적 안정감, 타인에 대한 친화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 공감태도( $\beta=.357$ ), 성격요인 중 개방성( $\beta=.253$ )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Shin(2016)의 연구에서 문화적 공감태도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간호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인 태도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인 태도와 더불어 성격요인 중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개인적 성향을 반영하는 개방성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Kim, Lee와 Kim(2011), McCance(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im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간호사는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문화권 출신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지닌다. 한편 McCance(2010)의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양한 경험과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경험과 문화에 대한 공감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는 작업치료 학과 전공생의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공감태도와 개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미래 보건 의료인으로서 지니고 개발해야 할 역량인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미래 작업치료사가 될 작업치료 전공 학생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역량인 문화적 역량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 학과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 및 교육은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im & Shin, 2016; Grady, Brungardt, & Doll, 2018; Rasmussen, Lloyd, & Wielandt, 2005; Reynolds & Rivera, 2012).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은 개인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eek & Park, 2013; Reynolds & Rivera, 2012).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경험하는 것도 문화적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때 개인의 문화적 역량은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하다(Cronin, 2005). 구체적으로, Grady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작업치료학과생의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Peek과 Park(2013)의 연구에서도 학과 교과과정에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 및 교육을 통해 학부생들의 다문화 역량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하여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의 4개 도시에 소재하는 4년제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럼에도 전국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문화적 공감태도, 성격특성만을 고려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특성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작업치료학과생의 문화적 공감태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은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작업치료학과생의 문화적 공감태도와 개방성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 보건의료인인 작업치료사가 될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작업치료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 작업치료사인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문화적 공감태도와 성격특성 중 개방성이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에서 작업치료 전공 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 문화적 공감태도와 개방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REFERENCES

통계청. (2018). *결혼이민자 현황*. Retrieved July 15, 2020, from <http://index.go.kr/main.do>.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5). Standards for continuing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9(Suppl. 3), 6913410055p1-6913410055p3.

Balcazar, F. E., Suarez-Balcazar, Y., & Taylor-Ritzler, T. (2009). 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14), 1153-1160.

Berlin, A., Nilsson, G., & Tornkvist, L. (2010). Cultural competence among Swedish child health nurses after specific training: A randomized trial.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2, 381-391.

Brach, C., & Fraserirector, I. (2000). Can cultural competency reduce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A review and conceptual model.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7(1), 181-217.

Calvillo, E., Clark, L., Ballantyne, J. E., Pacquiao, D., Purnell, L. D., & Villarruel, A. M. (2009). Cultural competency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2), 137-145.

Chae, D. H., Park, Y. H., Kang, K. H., & Lee, T. H.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 76-86.

Cronin, M. S. (2005).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New York, USA.

Dillard, M., Andonian, L., Flores, O., Lai, L., MacRae, A., & Shakir, M. (1992). Culturally competent occupational therapy in a diversely populated mental health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6(8), 721-726.

Grady, S., Brungardt, K., & Doll, J. (2018). The impact of classroom instruction on cultural awareness and sensitivity i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2(2), 1-13.

Jeffrey, C. L. (2008). Empathy and competenc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88(7), 414-416.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Guilford.

Kim, D. H., & Kim, S. E. (2013).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3), 159-168.

Kim, J. H., Kim, B. H., & Ha, M. S. (2011). Validation



-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47-65.
- Kim, J. Y. (2013).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Lee, E., & Kim, J. (2011).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 3049-3058.
- Kim, M. S., & Shin, D. S. (2016).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6), 3437-3450.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2019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Retrieved July 10, 2020, from <http://kess.kedi.re.kr/post/6672839>.
- Levin, M. E. (2007). Impact of language and culture on the quality of medical communication and care. *Current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2), 54.
- McCance, A. S. (2010). *Emotional labor in intercultural service encounter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Illinois, USA.
- McCoy, J. A. (2006). Is empathy a fundamental substrate for cultural competency. *92nd annual clinical congress*, Atlanta, October 10, 2006.
- Min, S. H., & Lee, M. Y. (2009).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1), 183-20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Retrieved July 10, 2020, from <http://mohw.go.kr>.
- Ministry of Justice.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Retrieved July 13, 2020, from <http://moj.go.kr>.
- Mu, K., Coppard, B. M., Bracciano, A., Doll, J., & Matthews, A. (2010). Fostering cultural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and leadership through international outreach.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24(1), 74-85.
- Oh, Y. I.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and loyalty of Korean medical tourism*.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Peek, E. H., & Park, C. S. (2013).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90-696.
- Rasmussen, T. M., Lloyd, C., & Wielandt, T. (2005). Cultural awareness among Queensland undergraduat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2(4), 302-310.
- Reynolds, A. L., & Rivera, L. 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self-reported multicultural competence of graduate student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6(3), 167-173.
- Suarez-Balcazar, Y., Rodawoski, J., Balcazar, F., Taylor-Ritzler, T., Portillo, N., Barwacz, D., & Willis, C. (2009). Perceived levels of cultural competence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3(4), 498-505.
- Sue, S., Zane, N., Nagayama Hall, G. C., & Berger, L. K. (2009). The case for cultural competency in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525-548.
- Wang, Y. W. M., Davison, M. M., Yakushko, O. F., Savoy, H. B., Tan, J. A., & Bleier, J. K. (2003).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221-234.
- Wendt, D. C., & Gone, J. P. (2012). Rethinking cultural competence: Insights from indigenous community treatment settings. *Transcultural Psychiatry*, 49(2), 206-222.
- Yang, S. Y., & Lim, H. N., & Lee, J. H.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183-193.

## Abstract

# The Effect of Cultural Empathy and Personality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Lee, Oan-Na\*\*, Ph.D., Lee, Soo-Hyee\*\*, Jeon, Hyun-Jung\*\*, Chae, Myoung-Hoo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sun University/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sun University/Studen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ltural empathy, and personalities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Methods :** One-hundred and fifty-five university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in Jeollanamdo and Gwangju completed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a demographic questionnaire,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SEE), Big Five Inventory(BFI), and (CCAI).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emographic variables, cultural empathy, personalities, and cultural competenc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for Windows.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differences in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by gender. Also,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ultural empathy, personality, and cultural competence. Lastly, cultural empathy( $\beta=.357$ ), openness( $\beta=.252$ ), and school year( $\beta=-.148$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ultural competence.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larified the relationships among cultural empathy, personality, and cultural competence, and will provide data for the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dergraduates of occupational therapy.

**Key words :**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Empathy, Personality Factor